

# 삼미종합조경을 찾아서...



속리산과 법주사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충북 보은군, 옛날부터 대추의 고향으로 이름난 보은군 수한면 거현리에 자리한 삼미종합조경 박미자 대표의 소나무 반송 전문 농장을 찾았다.

반송 전문 보은농장



**박미자**  
(삼미종합조경 대표)

## 사과나무 과수원집의 젊은 부부

박미자 대표는 1954년도에 보은 읍내에서 태어나 농사일이라곤 전혀 모르고 자란 처녀였다.

1979년도에 시골 과수원집 아들인 남편 최재중씨를 만나 동고동락 해 오던 것이 지금의 삼미종합조경의 대표이사가 되어 조경공사 현장을 뛰어 다니고 있다.

결혼 후 첫 3년간은 시부모님 모시고 논·밭이며 사과나무 과수원을 하다보니 옛날 품종인 홍옥·국광·인도·골덴 등의 품종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았자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농사는 시부모님에게 맡기고 1982년 3살

짜리 이들을 업고 남편이 취업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던 삼양원이라는 조경회사를 찾아 세 식구가 상경한 것이 줄곧 조경업과 인연이 되어 오늘의 삼미조경이 있게 되었으며 모든 것은 남편 최재중씨가 이룩한 것으로 자기는 그저 뒷전에 있다 무임승차한 것이라며 남편에게 공로를 돌린다.

### 신용과 성실로 일궈낸 조경인의 꿈

최재중 사장은 어린 나이부터 늘 부모님 곁에서 사과 나무를 손질하고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을 보고 듣고 심부름 하며 몸소 체험하고 익혀왔던 터라 나무 다루는 일이라면 이력이 날대로 난 젊은이였기에 삼양원에 취업한지 3년만에 조경수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일꾼으로 통하게 되었다.

어린 묘목을 기르는 양묘에서부터 조경수의 굴취, 이식, 식재는 물론 구입, 판매와 조경시공까지 20대 젊은 나이지만 누구 못지않은 지식과 기술과 작업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당시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조경업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절이라 계속 같이 일하자는 삼양원 사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입사한 지 3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 강남 한복판인 방배동에서 30세 젊은 나이에 무모하리만치 과감하게 홀로 조경업에 뛰어 들었다.

### 삼미조경공사 창업

조경수나무 다루는 것 하나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 주로 개인 주택 시공에 따른 조경공사를 맡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시골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농사짓던 힘의 반만 노력해도 도시에서는 최고의 일꾼으로 환영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워낙 착실하고 성실하게 자라온 터라 남들 따라하지 않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시골에서 나고 자라며 배우고 익힌 성실함 그대로 맡은 일을 해준하니 한번 거래했던 분들은 조그만 일이라도 있을 때 꼭 다시 찾아주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주곤 하여 방배동과 논현동 일대에서는 유명한 조경 시공자로 알려졌으며 고급 주택가인 강북의 평창동 지역 역시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저명인사들의 대저택 정원공사를 그가 시공해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란다.

개인 주택 정원공사에서 기반을 이룩한 그는 1987년 조경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만한 땅을 물색 중 산간 오지인 경북 영양군 그중에서도 유명한 산골인 일월산 아래에 46,000평의 임야를 구입하고 1988년 11월 16일 처음 취업했던 조경회사인 삼양원의 삼자와 부인 박미자의 미자를 따서 삼미조경공사를 창업하였다.

### 삼미조경의 제2농장

경북에서 가장 높은 영양 일월산, 해발 1219m인 일월산은 산 정상에서 멀리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달을 볼 수 있다 해서 일월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산으로 유순한 산세와 푸근한 느낌으로 여성 산이라고 불리며 또한 영동과 영서 그리고 영남이 만나는 정기가 모인 산이라고 하여 무속신앙의 성지로 이름난 산으로 그 범위가 워낙 크고 인근 지역이 겹겹이 산이라서 오지 중에 오지인 교통 불편한 고장이지만 반면에 가격이 저렴하여 임야를 구입 우선 법적기준인 15개 수종 25,000본의 조경수를 채우기 위해 상록수인 소나무·주목·향나무·회양목들과 교목인 은행나무·벚나무·느티나무·단풍나무 등 당시 가장 대중적이며 유행하는 나무들을 식재하여 이듬해 조경공사를 시작하게 된 발판이 되었다.

### 하루해가 걸리는 교통 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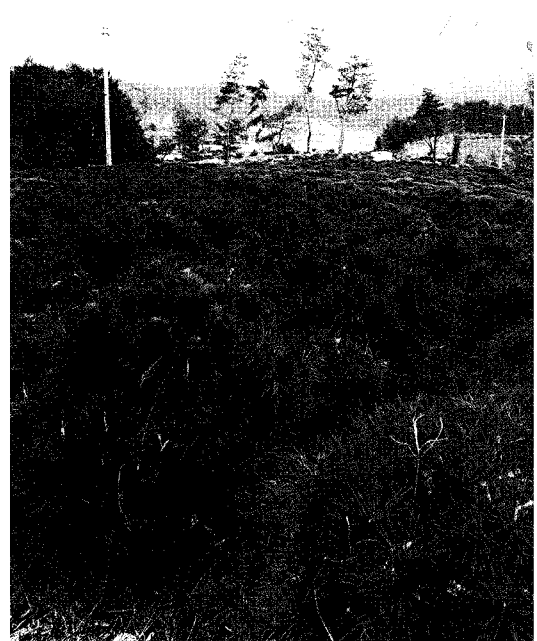
지금은 그나마 중앙 고속도로가 개통된 덕분에 안동에서 내려 청송을 거쳐 영양으로 가는 빠른 길이 생겼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가면 5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이다. 예전에는 문경새재를 넘어 안동을 거쳐 가거나 단양·풍기의 죽령재를 넘어 영주 봉화를 거쳐 가거나 어느 길로 가도 하루가 걸리는 길바닥에서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아 자연히 발걸음이 뜸해지고 관리 또한 소홀해져 그간 조경공사에 많은 나무를 제공하고 지금도 다양한 수종이 심겨져 있어 수목 조달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지만 너무나 거리가 멀고 불편하여 고향땅 보은에다 제2농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 고향땅 보은의 제2농장

최재중 사장의 고향은 보은 군청 소재지에서 남쪽에 있는 수한면 거현리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삼남 삼녀 중 셋째이며, 아들로는 둘째로 태어나 고향에서 결혼



보은 반송 농장



반송 포지

후 첫아이를 낳고 나서도 농사를 짓던 곳이다 보니 고향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해 항상 고향 시골을 꿈꾸던 터에 2003년 마을 복판 땅 10,000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평소 가장 아끼고 선호하는 수종인 반송 전문 농장으로 제2농장을 멋지게 조성하였다.

### 종합 조경인의 꿈

그는 주로 조경 공사업에 주력하였다. 조경수 재배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였고 이제껏 식재한 조경수는 자가 소비만 하였을 뿐 한 번도 판매한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름난 장소의 대형 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닌 주로 아파트 조경이나 가로 정비, 소규모 공원 조성 등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조경공사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시공하였기에 날로 그 신임도가 늘어나 2001년 삼미 종합조경을 설립, 종합 조경인의 꿈을 이룩하였고 현재 대한 전문건설협회의 조경시설물설치협회 회장, 조경 식재 서울시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지금은 청와대앞 관광명소사업 조경공사와 도봉·동작구청의 가로수거리 조경공사를 맡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보은 가는 길

대추의 고장 보은. 옛날부터 “복날에 비가 오면 보은 큰애기가 운다.” 라는 말이 있듯 보은하면 대추, 대추하면 의례히 보은하던 이름난 대추 고장이 대추나무 빗자루 병으로 재래종 대추는 전멸 하다시피 한 것을 금년

들어 계란대추라는 별칭으로 어린아이 주먹만크씩 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 행정관서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심고 보급함으로써 이제는 대추고을의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금년 3회째 “보은대추는 과일이다.” 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축제를 열고 있는 대추고을 보은을 찾아 갔다.

경부선과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보은에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3개나 생겼으니 이제는 빠르겠구나 하던 것이 고속 버스는 예나 다름없이 청주를 거쳐 보은까지는 정거장마다 정차하니 시간은 자꾸만 가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금방 어두워진다.

### 반송 전문 보은농장

박미자 대표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조경업하는



보은농장 정원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있었을 뿐 조경업에 직접 관여는 않고 생활하던 것이 2001년 5월 17일 삼미종합조경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조경업에 뛰어 들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무실에 나와 온갖 업무 처리부터 현장 일까지 배우고 익히며 자꾸 부딪치다 보니 이제는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가 다 되었다.

보은 농장이 있는 고향 거현리 마을은 보은읍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시골 마을로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가야 도착하였다.

부락 한가운데 야트막한 언덕 양편에 가득 반송만 심은 농장은 6년 전에 짓가락만한 2년생 묘목 3만 본을 4천만 원에 구입, 심어 놓은 것이 지금은 지름 2자가 넘는 보기 좋은 반송들이 되었다.

반송을 선택한 것은 두 내외가 부드러운 반원 곡선에 모나지 않게 크는 반송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한 느낌이 좋아 반송 전문 농장을 시작하였단다.

조경업을 하다보니 어느 한가지라도 남다른 특징과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고향땅에다 마음먹고 반송 전문 농장을 차리게 되었다.

아직은 반송에 대한 남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가꾸다 보면 반송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 온가족의 열정 조경 사업

박미자 대표가 취임하면서 우리 조경수협회에도 가입하였단다. 전에는 그저 혼자 애태우던 일들이 협회의 도움으로 해결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란다. 특히 조경수 구입 선정에서 협회지의 회원사 조경수 매물정보를 수시로 활용하고 공사 시행 시 발주처에 수종변경 요구할 때 협회 확인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했는지 모른다.

보은 농장에는 멋진 정원과 관리사를 지어놓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내려와 조경수를 가꾸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사무실 역시 두 내외와 외아들 이렇게 3 식구가 전부 나와 조경업에 매달리며 종업원 7명을 두고 연간 6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조경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



보은농장 관리사

